

# 사(史): 시대와 정신

## 기말소논문

어떻게 박정희는 경제개발을 성공시켰는가.

## <목차>

1. 서론 .....	2
2. 본론 .....	3
2.1.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전 경제 상황.....	3
2.2.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 경제 상황.....	4
2.3.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던 이유.....	5
2.3.1. 박정희 대통령의 성향과 리더십.....	5
2.3.2. 적절한 국제 정세.....	6
3. 결론.....	7
참고문헌.....	8

## 1. 서론

‘국내총생산 세계 12위, 1인당 국내총생산 세계 26위, 국가경쟁력 세계 27위’<sup>1)</sup> 2019년의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부터 첨단 장비로 무장한 전투기까지 수출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준의 경제를 이루어낸 것은 불과 50년이 채 되지 않는다. 반세기 전인 1950년 대의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많은 물질 피해를 보았고, 대부분의 사회 인프라가 파괴되었다. 휴전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은 67달러 정도로 세계 109위 최 극빈 국가였다. 휴전 이후 대부분 물자를 해외 국가들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사회, 경제적 불평등까지 발생한다. 이러한 1950년대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시대’로 평가된다<sup>2)</sup>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정변을 통해 집권을 시작한 후 혁명과업을 주창하며 ‘경제개발’과 ‘안보’를 중요 과업으로 삼으며 다양한 경제개발이 시작된다. 대표적인 예로 집권 초기에 자립적인 경제 발전을 목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다음은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의 신년 연설을 줄인 것이다.

“은 국력을 총동원했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의존과 빈곤으로 얼룩졌던 이 나라에 자립과 번영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살기 좋은 조국을 물려주어야겠다는 결의가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조국 근대화를 이한 우리의 노력은 더욱더 크고 즐기차야 하겠습니다.”

1) 국가지표체계 ([www.index.co.kr](http://www.index.co.kr))

2) 이현진(2004) 「1950년대 한국 경제사 연구의 최근 동향」 234쪽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재벌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1960년대 경공업을 발전시켰고, 1970년대는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발전주도형 정부 형태로 산업화를 빠른 속도로 이룩하였고, 그 결과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1950년대 6.25 전쟁 직후 아프리카의 콩고보다 잘 살지 못하는 후진국이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급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과연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경제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 우선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전후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볼 것이다. 이후 막스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통해 질문의 답을 찾을 것이다.

## 2. 본론

### 2.1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전의 경제

1950년대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시기로, 많은 전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해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일차적으로 일반 대중의 생활에 대한 압박과 생산의 감소로 나타났다.<sup>3)</sup> 전후 피해의 상당수가 학교, 일반주택의 피해였던 점을 보아 일반 대중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일제강점기 해방 후 대한민국은 남농북공(南農北工) 상태였기에 노동력이 주가 되는 1차 산업에 큰 피해를 보았다. 이러한 인적 피해에 버금가는 물적 피해로는 산업기반 파괴로 인한 생산의 감소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전쟁 당시 자동차, 타이어, 건전지 공업을 제외한 대부분 공업이 1950년에 전쟁으로 인해 생산이 급감했다.<sup>4)</sup> 또한, 전쟁으로 인해 전체 건물과 시설이 40~50%의 피해를 보았고, 이것은 대한민국 2차 산업의 핵심인 제조업 부문의 약 절반가량의 피해와 연결되었다. 이처럼 한국전쟁은 1950년대의 대한민국 경제에 다양한 피해를 줬다. 휴전협정 이후에는 전후 피해를 복구하고 기아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 경제원조를 받게 된다. 미국의 경제원조는 군사지원부터 해외 민간 투자까지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잉여 생산물을 원조받았고, 산업기반을 세우기 위한 원자재들 역시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았다. 앞서 나온 일차적인 원조 이외에도 경제 부흥을 위한 금전적인 원조도 받았는데, 특히 경제 부흥을 위한 투자에서 총금액의 50% 이상을 원조와 해외 차입에 의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부흥을 위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고자 했던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산업금융채 및 산업부흥 채를 발행하였고 이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sup>5)</sup> 이처럼 1950년대의 대한민국 경제는 전쟁으로 인해 피해와 해외 원조에 대한 높은 의존으로 인해 암흑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3) 강동원(2003), 「한국전쟁의 물적 피해와 그 경제적 영향」, 석사학위, 서강대학교 대학원

4) 같은 글 43쪽

5) 레미지(2016),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2.2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 경제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하게 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 국가 경제와 안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했다. 그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동안 일관되게 ‘혁명과업’을 추진하는데, ‘혁명과업’의 핵심은 ‘경제 성장’과 ‘안보’였다.<sup>6)</sup>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한 첫 시작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국외자본도입’을 시도한다. 당시 대한민국 경제는 저소득, 저저축, 저투자, 저소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경제를 성장하기 위한 기반조치 세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국외 자본을 도입해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투자 효과가 큰 기업들을 지원하여 저소득의 악순환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계획 발표 초기에 미국은 무상원조를 받는 나라에는 차관을 줄 수 없다는 태도이었고, 일본은 국교 수립이 안 된 상태였다. 그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사절단을 서독에 파견해 차관제공을 요청했고, 서독에 파독 광부를 지원하고 그들의 급여를 담보로 4천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얻어냈다. 하지만 4천만 달러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에 부족했고,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총 8억 불의 자금을 받는다. 이렇게 해외에서 유치한 자본들은 포항제철 건설 등 산업화를 위해 집중 투자하였다.<sup>7)</sup> 이 외에도 베트남 파병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원조,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지원, 1억 5천만 달러의 차관과 경제지원 등을 브라운 각서에 의해 보장받았다. 이러한 국외 자본을 바탕으로 경공업부터 중화학 공업까지 다양한 공업들을 발달시켰고, 경제 안정화를 위한 사회 간접 자본 또한 확충했다.

경제 기반이 마련된 후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목표를 경제 안정화에서 성장 그리고 수입 대체에서 수출 촉진으로 전환했다. 이에 맞춰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제일주의 정책을 펼쳤고, 특히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수출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섬유, 합판, 신발 등의 산업이 급성장했다. 더욱 활발한 수출을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계, 설비,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세해 주었고, 관련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해주었다. 이런 수출 촉진 정책 덕분에 1, 2차 경제개발 기간 대한민국의 수출은 연평균 38.8%로 많이 증가했다. 수출을 위한 정책들과 기업과 및 국민의 협동을 바탕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1977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다. 이후 3차 경제개발로 접어들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경공업뿐만 아니라 철강, 조선, 기계와 같은 중공업들을 발전시켜 장기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했다.<sup>8)</sup> 이 외에 가계의 저축을 증가시켜 국내 자본 조달을 확대하는 ‘자본시장 육성 정책’, 경제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과 부실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금융 정책’ 등을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 국민을 하나의 협력 체제로 만들어, 결국 1954년 7.2%에 불과했던 경제 성장률을 1970년 10%까지 증가시켰고, 1960년 129만 원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을 10년 만에 247만 원으로 증가시켰다.<sup>9)</sup>

6) 한배호(2012) 「박정희 경제 강국을 이룩한 혁명정 정치가」 23쪽

7) 정시구(2016) 「박정희 새마을 운동 전 1960년대 경제개발에 대한 연구」 81쪽

8) 박진근(2009)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172쪽

9) 국가지표체계 (www.index.co.kr)

## 2.3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

### 2.3.1 박정희 대통령의 성향과 리더십

박정희 대통령은 18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했다. 1961년부터 1963년 말까지 3년간을 최고회의 의장으로 활동했고, 1963년 민정 이양 이후 제5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암살당하기 전인 9대 대통령까지 거의 한 세대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통치했다.<sup>10)</sup>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역사상 박정희 대통령처럼 장기집권을 한 지도자는 전무후무하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다른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다. 그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과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역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간 대통령으로서 집권했다는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능력과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잘 알려져 있듯이 군 장교 출신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사람이다. 그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전형적인 군인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sup>11)</sup> 군인적 사고방식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전문적 지식과 훈련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고방식으로 목적달성을 위해 때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러한 군사적 사고방식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성공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경제개발을 위한 국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들을 보내고 그들의 급여를 담보로 차관을 얻어냈고, 미국에서 차관을 지원받지 못하자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차관을 얻어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목적달성을 위해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과제 지향적이었다.<sup>12)</sup> 이러한 리더십은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이 존재하더라도 더 큰 목표를 위해 감수하고 추진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경제 성장을 이뤄낸 다른 요인 중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현실을 타파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다.<sup>13)</sup> 박정희 대통령의 현실을 타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예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國家와革命과나』(高麗書籍株式會社, 1965) 글이 있다. 다음은 글의 서문이다.

“외적(북한인민군을 말함—필자 주)을 물리치고 이번에는 국내에서 외적보다 더욱 혹독하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분명히 이것은 내적이다—구 정객들을 향하여 한강을 건넜다. (중략) 한강을 건너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민주당 정권의 구약도 구약이려니와, 그보다 나의 머리에 맴돌고 있던 것은 한국의 정치적인 병폐와 그 지독한 고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였다.”(61~2쪽)

이처럼 박정희 대통령은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는 성향은 집권한 이후 ‘혁명과업’을 주창하며 가장 큰 문제였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개발로 이어졌고, 결국 현실을 타파하는 성향과 군사적 사고방식이 결합하여 경이로운 수준의 경제개발을 성공시키게 된다.

10) 한배호(2012) 「박정희 경제 강국을 이룩한 혁명정 정치가」 17쪽

11) 같은 글 17쪽

12) 같은 글 22쪽

13) 같은 글 20쪽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집필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가에게 필요한 자질 3가지를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열정은 대의와 대의를 위한 헌신을 말한다. 막스 베버는 ‘올바른 정치가’는 권력을 개인적인 자기도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대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했다.<sup>14)</sup> 이러한 막스 베버의 관점에서 본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올바른 정치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제개발을 하는 데 있어 쿠데타 집권을 정당화하고 정권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 열정과 야망을 품고 있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관련 연설과 자신이 직접 공사 현장을 시찰하며 진두지휘하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빠른 경제개발을 위해 반대 세력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 독재적인 모습도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은 외교를 통해 국외 자본을 유치하고 기업들을 육성시켜 수출을 증가시키는 등 결국 경제 성장을 이뤄내는 데 사용되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생명이나 정당성을 위해 경제개발을 이용했다면 결국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대의와 그 대의에 열정과 야망이 있었기에 경제개발이 성공할 수 있었다.

## 2.3.2 적절한 국제 정세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추진할 당시 국제 사회는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 냉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한국은 냉전 체제하에서 미국,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일찍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경제 발전에 필요한 외자를 조달하는 데 있어 훨씬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sup>15)</sup> 또한 국제 연합 UN은 1960년대에 ‘개발 10년’이라는 표어를 내세워 선진 회원국들이 후국에게 경제원조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독촉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서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 확보를 위해 한일협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협상이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그러자 냉전 상황에서 조급했던 미국은 리스크 국무장관을 통해 우리 측 주장을 이해하고 협정을 진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협정을 통해 얻은 자본은 사회간접 자본 확충과 산업화를 위한 기업 육성에 사용되었다. 또한, 베트남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베트남 전쟁은 경제개발에 큰 도움을 주었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베트남 참전에 따른 한국 측 경제적 이득으로 5억 4,000만 달러를 추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군인들이 베트남에 파병을 가면서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브라운 각서를 통해 이러한 지원들이 보장되었다.

이 외에도 북한과의 대치와 위기의식이 경제개발에 있어 촉진제가 되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 운동은 북한이 1958년에 결정한 ‘천리마 운동’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시작되었다.<sup>16)</sup> 남북이 심각하게 대치된 상황에서 북한이 천리마 제강 연합 기업소에서부터 시작한 ‘천리마 운동’, ‘새벽별보기운동’등으로 증산에 노력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 공산당에 패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졌고, 대응방안으로 ‘새마을 운동’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14) 막스 베버(역:최장집), 『소명으로서의 정치』, 폴리테이아, 2011 196~201쪽

15) 정시구(2016) 「새마을운동 전 1960년대 경제개발에 대한 연구」 81쪽

16) 정시구(2014) 「박정희 대통령의 1960년대」 77쪽

‘군주론’을 작성한 마키아벨리는 정치 다이내믹스의 중심 개념으로 비르투, 포르투나, 네체시타를 이야기한다. 군주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비극을 타고났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획극적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르투와 네체시타, 포르투나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경제개발을 추진할 때 미국과 일본과 특수한 관계에 놓여있는 행운 즉 포르투나가 있었고 이러한 포르투나를 바탕으로 한일협정을 끌어내는 정치적 능력 비르투 역시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포르투나와 비르투가 발현되기 위한 네체시타 즉 냉전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군주론 관점에서 현명한 지도자로서 국제 정세를 잘 활용해 성공적으로 경제개발을 이뤄냈다.

### 3. 결론

1950년대의 대한민국은 세계 최 극빈국으로 아프리카의 빈곤국들과 비슷한 위치였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경제가 점점 성장하더니 결국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개발을 통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이러한 경제개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통해서 분석해 보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먼저 첫 번째 요인은 박정희 대통령 개인적 성향과 리더십이다. 군인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은 남들과 다른 군사적 사고방식과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하여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단기간에 성공적인 경제개발을 이뤄낼 수 있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대의가 있었고 그 대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과 야망이 있었기에 경제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요인은 적절했던 국제 정세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추진할 당시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냉전 체제가 진행되고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이용하여 국외 자본을 들여와 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베트남 전쟁, 북한과의 대치상황 등의 국제 정세를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함께 잘 활용하였고, 결국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앞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었다. 정치적 능력을 발휘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향해 질주하였고, 주변 상황을 유리하게 활용하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도자인 동시에 승부사였다. 자신의 야망과 대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승부를 통해 승리를 쟁취했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승리를 위한 방법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뉘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야망과 대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 참고문헌

- 막스 베버(역:최장집), 『소명으로서의 정치』, 폴리테이아, 2011  
 니콜로 마키아벨리(역:강정인), 『군주론』, 까치, 1994  
 이현진(2004) 「1950년대 한국 경제사 연구의 최근 동향」  
 강동원(2003), 「한국전쟁의 물적 피해와 그 경제적 영향」, 석사학위. 서강대학교 대학원  
 레미지(2016), 「1950년대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

한배호(2012) 「박정희 경제 강국을 이룩한 혁명적 정치가」  
박진근(2009) 「한국 역대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정시구(2016) 「박정희 새마을 운동 전 1960년대 경제개발에 대한 연구」  
막스 베버(역:최장집), 『소명으로서의 정치』, 폴리테이아, 2011  
정시구(2014) 「박정희 대통령의 1960년대」